

삼성 주도 국가 AI컴퓨팅센터 해남에 조성

2028년 40MW 구축...2030년까지 80MW 규모 확대

AI 연구개발·산업 혁신 이끌 국가 핵심 인프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본격화됐다. 국가 AI컴퓨팅센터가 해남 솔라시도에서 첫 삽을 뜨면서 AI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국가 AI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해남군 산업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착공식을 열고 대한민국 AI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 조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를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영암군,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AI 산업 육성 비전을 공유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연구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초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자원을 구축·운영해 산업계와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다.

센터는 2028년까지 40MW 규모로 조성되며 AI 수요 증가에 맞춰 2030년까지 80MW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총사

업비는 약 2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내 약 1만5000평 부지에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시설 등이 어선다.

국가 AI컴퓨팅센터가 가동되면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데이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 등 관련 기업 집적이 본격화되고 전문인력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민간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학·연 협력과 기술혁신이 선순환하는 국가 AI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될 경우 AI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이 집적되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896조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전남광주에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반도체와 전력, 첨단 제조 기반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첫 삽이 솔라시도의 새로운 출발이자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남광주의 압도적인 성장으로 AI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3일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설부지에서 내빈들과 글로벌 초일류 AI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군 참여방안’ 협의

무안 국가산단 지정·이전 비용 분담 등 논의

군공항 부지 ‘선양여’ 특례로 반도체 조성 병행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실무회의를 긴급히 열어 무안군의 참여 방안과 사업비 분담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남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무안군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 기관들은 무안군이 이전후보지 선정 위원회 불참과 함께 요구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군공항 이전사업비 부족분 분담, 특별법 개정 방향 등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입주기업 수요·사업성·관계기관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안군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추진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지 지정과 MOU 체결 등 구체적인 이행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이날 중 무안군의 이전후보지 선정위 참여를 끌어내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날 후보지 선정이 이뤄져야 오는 10월 주민투표를 거쳐 11월 이전부지를 확정한다는 기존 로드맵을 지킬 수 있다.

실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병행하기 위한 법적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대로라면 새 군공항의 건설과 기부가 끝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야 해, 군공항 이전 완료 전에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전에도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국가산단 조성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선양여’ 특례를 두는 방안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부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와 특별시가 어떻게 분담할지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종전부지를 주거·상업시설 중심으로 개발할 때보다 수익이 크게 줄어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새 군공항 건설비와 무안지역 지원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실무회의 참석 기관들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와 분담 비율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특별시는 무안 국가산단과 MOU 체결, 선양여 특례, 사업비 분담 방안을 놓고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정준호, KTX·SR 통합 이끌어 좌석 대폭 확대

호남석 이용객 편의 크게 개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3일 “KTX-SRT 통합을 통해 호남선 열차의 좌석을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으로 호남선 좌석 수는 주중 하루 3742석, 주말 하루 4822석이 각각 늘어난다. 또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의

소요시간은 평균 3시간 8분에서 2시간 21분으로 약 47분 단축돼, 이용객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SRT 이용객과 의 요구 형평성을 위해 평균 운임도 10% 이상 할인된다.

정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호남선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KTX-SR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토위 상임위와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 등에게 4회 이상 질



의했고, 국토부,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아침·밤 시간대 요금 인하와 10년 만의 첫 증편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올해 5월부터는 수서·광주송정 일부 노선의 좌석 수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결실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토위 활동 불과 2년만에 20년을 노력해도 장담하지 못할 성과를 이뤄냈다는 격려는 너무 과분하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대본 비상 2단계 격상...전남광주, 폭염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일 오전 11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비상 2단계 격상은 지난 1일 광양, 보성, 여수를 시작으로 3일 순천, 곡성, 광주 동부권역(동·서·남·북구)에 ‘폭염 중대경

보’가 잇따라 발효되는 등 극한 폭염 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3일 기준 곡성·순천 등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도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비상 2단계 격

상에 따라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농업인이 한낮에 야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자율방재단원 등을 통한 예방 활동·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발효와 함께 긴급한 조치 외의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남일보 여론조사

‘보완수사권 폐지’ 전남광주 66% 찬성

반대 23.6%...30대 이하 찬반의견 오차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66.6%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남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은 66.6%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23.6%, 모름은 9.8%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 44.9%, 대체로 찬성 21.7%, 대체로 반대 8.4%, 매우 반대 15.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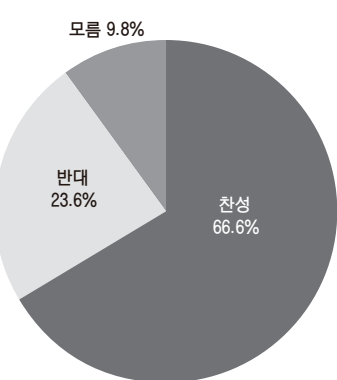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전 세대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를 보인 가운데 60대에서는 78.2%, 40대는 74.1%, 50대 74.0%, 70세 이상 72.5% 등으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30대(찬성 45.3%·반대 43.6%)와 18~29세대(찬성 43.0%·반대 41.3%)에서 찬반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2권역의 찬성의견이 71.5%로 높게 나타났으며, 3권역(69.3%)과 1권역(61.7%) 역시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다.

정당지지도별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각각 76.7%와 74.1%로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국민의힘(81.3%)과 개혁신당(72.3%) 지지층은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은(찬성 32.9%·반대42.8%)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서망 선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시민 민주당 지지도 ‘74.7%’

모든 연령층서 우세...18~29세 상대적으로 낮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74.7%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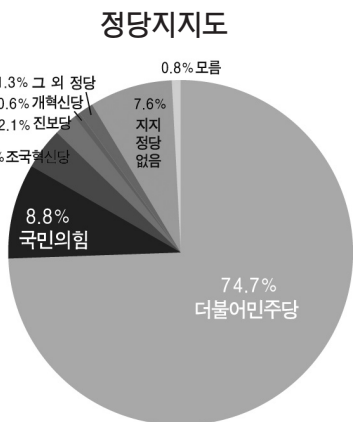
3일 광남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4.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지역 내 정치 지형이 민주당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8.8%, 조국혁신당 4.1%, 진보당 2.1%, 개혁신당 0.6%, 그의 정당 1.3%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 없음과 모름은 각각 7.6%, 0.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았지만, 특히 60대 87.2%와 70세 이상 85.4%, 40대 80.4%로 두드러졌다.

18~29세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9.5%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8.5%로 높게 나타났다. ‘없음·모름’ 비율이 각각 18.1%와 4.5%로 높아 정치적 유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전남 서부권 지역인 3권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9.1%, 전남 동부권 지역인 2권역 76.4%로 강세를 보였다. 광주권인 1권역에서 70.5%를 기록했다.



정당별 세부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은 18~29세(28.5%), 남성(1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전체적으로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30대(6.8%)와 3권역(5.1%)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안정적 국정 운영을 바라는 지역민들이 여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광남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8월 1일~2일 2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1만2641명, 응답률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조사는 광남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6년 8월 1일~2일 2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명(총 통화시도 1만2641명, 응답률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된다.